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남북 고위급 회담 사례분석을 통한  
입장협상의 위험성 분석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황 경 남

2017년 12월

# 남북 고위급 회담 사례분석을 통한 입장협상의 위험성 분석 연구

지도교수 황 경 수

황 경 남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황경남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병욱



위 원

남 진 필



위 원

황 경 수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년 12월



# The Analysis of the Dangers of Positional Negotiations through Case Studies of High Level Inter-Korean Talks

Kyong-Nam Hwang

(Supervised by professor Hwang, Kyung Soo)

This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17.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국문초록>

<b>I. 서 론</b> .....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6
1) 연구 배경 .....	6
2) 연구 목적 .....	6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7
<b>II. 협상이론 및 선행연구</b> .....	8
1. 협상관련 이론 .....	8
1) 협상의 개념 .....	8
2)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	9
3) 입장협상과 원칙협상 .....	10
4) 문제해결식 협상전략 .....	13
2. 남북협상관련 선행연구 .....	13
3. 분석의 틀 .....	19
<b>III. 남북협상의 역사와 과정 정리</b> .....	22
1. 남북한 대립적 상호작용과 적대적 공존관계의 역사 .....	22
2. 역사적 서술방법을 통해서 정리한 남북협상의 역사 .....	25

IV. 2015년 8월 25일 남북 고위급 회담 분석 .....	43
1. 치킨게임의 위험성 .....	43
2. 남북고위급 회담의 위험성 분석 .....	44
3. 회담분석을 통한 협상적 시각의 시사점 도출 .....	60
4. 남북고위급 회담 분석이 남한의 협상전략에 주는 교훈 .....	63
V. 결론 및 제언.....	66
1. 연구의 요약 .....	66
2. 정책 제언 .....	67
<참고문헌> .....	68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연성협상과 경성협상의 비교 .....	10
<표 2> 원칙협상과 경성입장협상의 개념과 요소 비교 .....	11
<표 3> 남북한 측의 회담 협상목표와 협상의제 .....	14
<표 4> 긴장완화/신뢰구축 합의사항 및 이행현황 .....	16
<표 5> 협상의 유형분류에 따른 분석의 틀 .....	20
<표 6> 회담내용과 절차에 대한 분석의 틀 .....	21
<표 7>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 .....	25
<표 8> 남북 주요 사건과 협상의 역사 정리 .....	26
<표 9> 2015년 남북고위급 회담의 협상유형으로서의 위치 .....	43
<표 10> 남북 고위급 협상의 내용 및 결과 위험성 해석 .....	45
<표 11>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에 대한 평가 .....	58



# 남북 고위급 회담 사례분석을 통한 입장협상의 위험성 분석 연구

지도교수 황 경 수

황 경 남

본 연구은 2015년 8월 25일 극적 타결된 남북 고위급 회담의 협상과정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입장협상의 위험성에 대해 해석한 후, 시사점을 찾으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은 큰 개념의 협상 내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분석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도 협상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고, 회담과정을 통해서 협상에 대응하는 양측의 모습을 해석하고자 했다.

연구는 문헌 연구개념 중심으로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사례분석을 통해서 내용 정리는 물론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분석 시에는 분석의 틀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해석하였다. 남과 북이 대치해 있는 상태의 민감성으로 인해 가급적 주관적인 해석은 피하고, 선행연구자들의 표현을 인용하여 논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북 고위급 회담과정 내용은 신문에서 기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어느 한 쪽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을 참고하여 균형을 가지도록 하였다.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하여 사실적인 내용을 정리하였고, 의견이 다르거나 다른 논리가 있는 경우 그 신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정리하였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협상과정에서 북측은 남측의 확장기를 금지시켜야 하고,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남측이 적절히 활용했다. 이로 인하여 남측의 협상 목적인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전쟁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심리적 중단에 심리적 절박함을 이용함으로써 남·북간의 합의가 이르게 되었다.

초기의 협상과정에서 남북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요구와 주장만 고수하다 협상 진행과정에서 남북은 한 발 물러나 양보함으로써 합의를 이뤄낸 점이 돋보인다.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을 촉발한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문제는 남측이 그동안 고수하던 원칙을 철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분석 결과에 따라 협상에서는 목적과 명분에서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실익보다는 명분을 더 중시하는 경우에는 목적달성보다는 명분에 의해 협상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 남북협상은 회담장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협상을 주도하는데 있어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국민적 단결이 곧 우리의 강력한 협상력이 된다. 주변국과의 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협상의 의제도 새로운 합의의 양산보다는 실천 가능한 사안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행하고, 합의사항을 지키면 이익이 되고, 안 지키면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며 협상과정에서도 이행이 가능하면서도 점점 마련이 용이한 사안들을 먼저 찾아서 하나씩 성사시켜가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향후 남북 고위급회담 및 중요한 외교협상 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남북고위급회담, 협상기법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본 연구의 배경은 2015년 8월 25일 남북 고위급 회담과정에서 협상기법으로 사용한 방법에 대한 위험성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남북 양측에서는 막다른 골목 기법을 쓰거나 치킨게임 이상의 왜곡된 협상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불안의 요소가 있었다는 점이다. 북의 경우는 전쟁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남측은 경계태세를 강화시키는 상황으로 유도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했다. 이러한 협상기법은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일반시민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8월 25일 극적 타결된 남북 고위급 회담의 협상과정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입장협상의 위험성에 대해 해석한 후, 시사점을 찾으려는 것에 있다. 본 연구가 남북 관계에서도 협상의 기법을 활용하여 평화를 가져오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은 큰 개념의 협상 내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분석하였다. 남북 고위급 회담도 협상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고, 회담과정을 통해서 협상에 대응하는 양 측의 모습을 해석하고자 했다.

##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사례분석을 통해서 내용 정리는 물론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분석 시에는 분석의 틀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해석하였다.

남북관계의 갈등 사례와 2015년 8월의 남북 고위급회담 사례에 대한 정리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과 북이 대치해 있는 상태의 민감성으로 인해 가급적 주관적인 해석은 피하고, 선행연구자들의 표현을 인용하여 논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북 고위급 회담과정 내용은 신문에서 기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어느 한 쪽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을 참고하여 균형을 가지도록 하였다.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하여 사실적인 내용을 정리하였고, 의견이 다르거나 다른 논리가 있는 경우 그 신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정리하였다.

## II. 협상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 1. 협상관련 이론

#### 1) 협상의 개념

협상의 개념은 다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달곤(2005, 16)은 협상은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곤은 협상은 “경쟁하는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가능한 복수의 대안들 중에서 그들 전체가 갈등을 줄이면서 수용할 수 있는 특정 대안을 찾아가는 동태적 의사결정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갈등을 줄이는 노력, 그리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처럼 서로 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 등을 매개로 불안으로 끌고 가는 행위는 협상이 아니다. 갈등을 줄여가는 것이 협상이라는 맥락이다.

허브 코헨(허브 코헨, 김태훈 옮김, 1996, 16-22)은 “거미같이 얽혀 있는 긴장 속에서 행동을 유발하도록 정보와 힘을 사용하는 것이며”, “양자 모두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긴장 속에서도 양자 모두를 승리로 이끄는 노력이 협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 속에서 모두가 승리하고 있는 공간 혹은 측면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전성철과 최철규(2009, 15-19)는 “협상은 기교가 아니며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상 기법이나 기교를 가지고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인간관계는 어떠했는가를 반추하게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신국호(2005, 15)는 협상을 “이해관계를 물리적 힘이나 싸움이 아닌 대화로 조정하여 갈등과 불만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즉, 협상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서로의 불만사항을 없애기 위한 방식”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국호는 전쟁으로 가는 것이 협상이 아니라 불만이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의 관계는 진정한 협상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상의 관점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협상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고 양자 모두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는 의사결정과정” 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의 남북관계, 특히 2015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전후 상황에 대한 해석을 위해 협상의 요소들을 여러 학자들로부터 요소를 규합 정리한 것이다.

## 2)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협상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달곤(2005)의 「협상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협상유형에는 분배적 협상(distributive negotiation)과 융화적 혹은 통합적 협상(integrated negotiation)이 있다(이달곤, 2005, 147). 분배적 협상이란 일방승리, 일방패배식의 협상(win-lose game)을 말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에는 기본적으로 경쟁적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며, 어느 일방이 이익을 보는 만큼 상대방은 손해를 보게 되는 협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통합적(융화적) 협상은 관련자 모두가 승리하는 협상으로 공통의 이익을 증진(win-win game)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자신의 이익을 1차적으로 중시하나 상대방의 이익까지 포함한 공통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협상이다.

### 3) 입장협상과 원칙협상

입상의 유형 중에는 입장협상(positional negotiation)과 원칙협상으로 나누는 유형 분류도 있다(이달곤, 2005, 147).

#### (1) 입장협상

입장협상이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 정의로운 해결이라 믿고 자신의 입장(position)에만 집착한 전략을 택하는 유형이다.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position)에만 집착하여 자신의 처지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세계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완전한 상태라면 자신의 주장을 따를 때 최선의 협상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협상에도 두 가지 유형이 협상이 있다. 첫째, 연성협상(soft negotiation game)이다. 자신의 입장이 있지만 협의하려하고 끌려가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협상전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성협상(hard negotiation game)이다. 완강한 상대를 상정할 때 사용하는 협상전략이다.

<표 1> 연성협상과 경성협상의 비교

연성협상	경성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들은 친구다</li> <li>▪ 목적은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li> <li>▪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양보한다</li> <li>▪ 상대와 협상이슈에 대해 모두 유순하다</li> <li>▪ 상대를 믿는다</li> <li>▪ 자신의 입장을 쉽게 바꾼다</li> <li>▪ 먼저 제안한다</li> <li>▪ 최대양보선을 공개한다</li> <li>▪ 합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양보한다.</li> <li>▪ 당사자 모두 만족할 대안 탐색</li> <li>▪ 합의 주장</li> <li>▪ 의지의 경합을 피한다</li> <li>▪ 압력에 굴복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는 적이다</li> <li>▪ 목적은 승자가 되는 것</li> <li>▪ 관계유지 대가로 일방적 양보 요구</li> <li>▪ 상대와 협상이슈에 모두 완강하다</li> <li>▪ 상대를 극도로 불신함</li> <li>▪ 자신의 입장 고수</li> <li>▪ 위협</li> <li>▪ 최대양보선에 대한 상대방의 오판유도</li> <li>▪ 합의에 대한 상당한 대가 요구</li> <li>▪ 자신만 만족할 대안 고안</li> <li>▪ 자신의 입장만 주장</li> <li>▪ 의지의 경합에서 승리하려 함</li> <li>▪ 압력을 가한다.</li> </ul>

자료 : 이달곤(2005), 「협상론」, 법문사, p.151.

연성협상은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가급적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협상을 진행해나간다. 이와는 반대로 경성협상의 경우 상대를 누르고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하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협상기법으로 자신의 만족할 때까지 협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국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입장협상 중에도 경성협상의 맥락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것이다.

## (2) 원칙협상

원칙협상은 일방적 입장에 집착한 경성협상 전략을 지양하고, 주관적·인간적 입장에서부터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이슈 중심적인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을 말한다((이달곤, 2005, 152).

원칙협상에서는 다음 네 가지 점을 주요한 지도원리로 삼는다. 첫째, 갈등문제로부터 사람과 관계를 일단 분리시켜 생각한다. 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만 집착하다 보면 인간의 아집이나 자의식이 각자의 입장과 뒤섞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이나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이해관계(INTERESTS)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합의를 이룰려고하기 이전에 상호이득을 가져오는 대안들을 개발한다. 넷째, 협상결과를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표 2> 원칙협상과 경성입장협상의 개념과 요소 비교

원칙협상	경성협상(입장협상)
1. 이해관계와 사람관계 분리 - 당사자들은 문제해결자이다 - 목적은 효율적이며 우호적으로 현명한 합의를 이룸 - 사람에게는 유순하고, 협상이슈에는 완강 2. 입장보다 이해관계에 초점 - 신뢰와 관계없이 협상진행 - 이해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는 적이다</li> <li>▪ 목적은 승자가 되는 것</li> <li>▪ 관계유지 대가로 일방적 양보 요구</li> <li>▪ 상대와 협상이슈에 모두 완강하다</li> <li>▪ 상대를 극도로 불신함</li> <li>▪ 자신의 입장 고수</li> <li>▪ 위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양보선을 되도록 갖지 않는다</li> <li>3.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합이득이 커질 수 있는 대안 탐색</li> <li>-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 파악</li> </ul> </li> <li>4. 객관적인 기준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판단보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합의유도</li> <li>- 이성에 따르고 합리적 논의를 통한 설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양보선에 대한 상대방의 오관유도</li> <li>▪ 합의에 대한 상당한 대가 요구</li> <li>▪ 자신만 만족할 대안 고안</li> <li>▪ 자신의 입장만 주장</li> <li>▪ 의지의 경합에서 승리하려 함</li> <li>▪ 압력을 가한다</li> </ul>
---	--

자료 : 이달곤(2005), 「협상론」, 법문사, p.155.

원칙협상은 상대방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입장을 주장하기보단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경성협상 특히 입장협상은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우선하여 주장하는 기법으로 가급적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상에 임하고 오직 승리만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 (3) 치킨게임

윤기관(2011)은 치킨게임(chicken game)이란 어떤 가상적인 게임에서 두 사람이 각각 자동차를 타고 서로에게 돌진할 때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핸들을 돌려 피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죽게 되지만, 누군가가 피한다면 먼저 피하는 사람이 겁쟁이가 되어 결국 지게 되는 경우의 게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용어는 냉전시대(1950년대-1980년) 미국과 소련연방 간의 군비경쟁을 빗대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

### (4) 화전양면전술

문성묵(2016)에 의하면 화전 양면전술이란 협상과정에서 이중적으로 쓰는 전술을 말한다. 한편으로 도발을 한 뒤, 협상국면으로 전환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 이후

에는 합의를 위반하고 다시 도발국면으로 바꾸는 악습을 구사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이성춘(2103)은 “사회주의 및 북한의 협상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협상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투쟁과 타협의 병행을 강조하는 본질을 지니고 있는 통일전선론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협상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호(2000)은 북한에 적용하여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협상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협상 환경이나 의제를 교묘하게 조작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만 북한의 다른 약소국에 비해 협상 환경을 변경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구사하고 있으며 또 협상의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기술이 비교적 뛰어난 편이라고 주장한다. 위기 조성 등 벼랑 끝 전술을 비롯한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협상 상대에 대한 공격적인 대우라는 긍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sup>1)</sup>

#### 4) 문제해결식 협상전략

문제해결식 협상전략이란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고 상대와 더불어 공동 문제인 상호갈등을 극히 체계적이며 협조적 자세로 공략하려는 것으로, 최선이라 판단되는 대안을 공동으로 선택하면서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이다(이달곤, 2005, 156)

## 2. 남북협상관련 선행연구

남북협상관련 선행연구들은 많으나 2015년 남북 고위급협상관련하여 분석한 논문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있었던 협상이어서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의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

1) 김용호(2000).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pp.305-306의 내용을 이성춘(2013)에서 재인용함.

의 의지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협상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러한 과정이 언론 등에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해석하고,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각 연구들이 차별성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분석의 방향과 틀을 구성하거나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때 참고하고자 한다.

### 1) 문성묵(2016) “남북 간 군사협상 사례연구”

문성묵(2016)의 경우 남북간 군사협상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부분적으로 2015년 남북 고위급 협상(8.25 합의)관련 양측의 협상의 목표와 의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남북간의 최고의 긴장상황을 당국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둘째,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남북간 군사협상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셋째, 군사협상 사례를 통해 본 남북 협상전략 및 전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문성묵(2016)에 따르면 남한 측과 북한 측의 협상목표는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3> 남북한 측의 회담 협상목표와 협상의제

	협상목표	긴장완화, 신뢰구축	평화상태 정착
남	협상의제	①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보장 ② 서해 해상 군사적 충돌방지 ③ 군사직통전화 설치 운용 ④ 군사정보 교환, 군인사교류 ⑤ 6.25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	① 군사회담 제도화/정례화 ② 북핵문제 해결 ③ 정전협정 준수 및 체제정상화 ④ NLL 존중 및 주수 ⑤ 국군포로 송환 등
북	협상목표	체제유지	대남적화

	협상의제 ① 철도·도로 연결 ② 선전활동중지 및 수단철폐 ③ 북북항로 및 제주해협 통과 ④ 해주직항로 허용 ⑤ 한강하구 골재 채취 ⑥ 유해 공동 발굴 등	① 정정체제사무실화 및 유엔사해체 ② NLL 무실화 ③ 주한미군 철수 요구 ④ 한·미 연합훈련 중지 요구 ⑤ 미·북 평화협정 체결 ⑥ 주적개념 폐지 요구 등
--	---	--

자료 : 문성목(2016), “남북간 군사협상 사례연구,”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19권 2호, pp.70-71.

넷째, 앞으로 회담이 열린다면 북 측은 관심사는 상호비방중상의 중지를 내세우면서 심리전의 완전 중단과 수단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5.24조치의 조건없는 해제<sup>2)</sup>, 금강산관광재개, 대규모 지원 확보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남북한 측은 회담 협상목표를 보면 남한의 경우 긴장완화와 상호간의 신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평화 상태를 정착하는데 그 목표가 있으나 북한의 경우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대남적화 통일을 협상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한의 협상의제 역시 남측은 서해 해상의 군사적 충돌방지와 군사직통전화설치하고 군사정보를 양측이 교환하고자 하였으며 군사회담을 제도화 정례화 하는 것을 의제로 내세운 반면 북측의 경우 대북선전활동을 즉시 중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와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중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협상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주제가 아니어서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2) 5.24조치의 조건 없는 해제란

## 2) 김동엽(2015)의 “남북 군사회담 합의의 이행 평가”

김동엽은 2015년 목함지뢰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 이루어진 상황까지를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합의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합의의 이행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첫째,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에 있어서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관련된 합의는 불이행되거나 이행되었다가도 파기되어 현재 합의 내용 중 이행된 것은 교류협력지원에 관한 합의 몇 건(9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과소평가하고 있다.

<표 4> 긴장완화/신뢰구축 합의사항 및 이행현황

구 분	주요 합의사항	평가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 합의서 (8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
	군 인사교류	×
	군사정보 교환	×
	군 최고 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통제0	×
	대량살상무기 및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
	해상불가침경계선 협의	×
제1차 국방장관 회담(2건)	군사적 긴장완화, 전쟁위험 제거 노력	×
	2차 국방장관 회담 2000년 11월 북측지역에서 개최	×
제2차 국방장관 회담(4건)	유해공동발굴 사업 추진	×
	제3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
	해상불가침경계선과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협의(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문제	×
장성급 회담(2건)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

제1차 국방장관 회담(1건)	철도·도로 연결 공사 관련 실무접촉 및 남북관리구역 설정	○
제2차 국방장관 회담(5건)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군사적 보장	○
	남북관리구역 통행 통신·	○
	서울-백두산 직항로 군사적 보장	×
	북측 민간선박 해주직항 통과 허용	×
실무회담(6건)	한강하구 공동이용	×
	철도·도로 연결작업 관련(4건)	○
	열차 시험운행	○

자료 : 김동엽(2015), 북한연구학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2권, 2015, pp.280-281.

둘째, 지금까지 군사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남북 군사회담을 재개하여 기존 합의한 내용을 이행 유지하는 것이 남북 군사관계를 넘어 남북관계에 지속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2015년 말)까지 안보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도 군사 충돌로 인한 파국은 방지하면서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북한의 도발 절대 불용’이라는 일관된 안보원칙을 고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연속성 없이 매번 위기상황을 일회성으로 봉합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많은 에너지 소모에도 불구하고 안보 우려와 걱정이 지속적으로 초래되는 상황의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남북 군사합의로 만들어 놓은 남북간 군사적 완충장치의 제거로 인하여 오인 및 우발상황 발생 시 확전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무능한 정치가 군인을 무책임하게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합의사항 및 이행현황을 보면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군사정보 교환을 합의한바 있으며 제1차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을 제거 하는데 남북한 상호 합의를 한다.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선 유해공동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합의를 한다.

### 3) 홍순직(2015)의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중 한반도 평화지수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015년 11월 25일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라는 발간물을 만들었고, 홍순직(2015)의 글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3/4분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8.25합의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치 급상승,” 이라는 글을 실었다. 본 연구와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25합의 이후 전문가 평가지수는 북한 광주 U-대회 불참과 대남 비난, 목함 지뢰사건 등의 긴장 조성에도 불구하고, 8.25 남북고위급 합의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해소됨에 따라 급등(22.4점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정량분석지수는 개성공단 사업과 경협 부문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방북인원 등의 감소로 감소(6.2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둘째,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8.25 합의 이행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 의제 제안과 이행으로 작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당국간 회담에서 민감한 정치·군사적 이슈보다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제·사회문화 사업부터 우선 논의하면서 점차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유도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교역이 2015년 당시 1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변화 유도방식에 있어서도 북한 시장화 진전과 경제개발 계획과 연계한, 보다 전향적인 교류협력 제안과 정책 집행의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 4) 김재철(2015)의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김재철(2015)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서 2015년 8.25합의 시점까지 상황을 참고하여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긴장요인으로는 동북아 요인, 북한 요인, 한·미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 간 군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촉발요인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강대국 간 국익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상황과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생존전략 등 근본요인을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긴장완화방안을 협력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회유가 필요하며, 동북아의 냉전적 갈등구도를 타파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한 가운데 북한을 국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조성한 가운데 상호주의를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북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군사위원회 설치, 남북한 군비통제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간 군사문제는 동북아 안보질서와 남북한 정치로부터 종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은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 동시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3. 분석의 틀

앞의 이론연구에서 살펴본 경성협상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로 삼고자 하였다. 그 분석의 틀에 따라 남국 고위급 회담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후에 분석하게 된다.



2015년의 남북 고위급회담은 협상의 유형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요소이다. 원칙협상과 대비되는 입장협상, 입장협상 중 가장 강경한 형태라 할 수 있는 경성협상의 하나인 치킨게임을 협상의 유형의 틀로 삼고자 한다.

<표 5> 협상의 유형분류에 따른 분석의 틀

협상의 유형	과정 정리	남북 고위급회담의 성격
원칙협상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역사적 접근과 협상론적 입장에서의 접근을 정리	분석의 틀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여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격 규정. 남북 고위급회담은 어떤 협상인가에 대한 규정을 함.
입장협상		
치킨게임		

협상의 유형분류에 따른 분석의 틀로 원칙협상, 입장협상, 치킨게임을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역사적, 협상론적 접근을 통해 남북고위급 회담이 어떤 협상인가에 대한 규정을 하였다.

분석 후에 위험성을 유발했던 상황들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위험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국가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가의 위험적 요소를 해석의 틀로 제시하고 그 요소에 따라 해석하고자 한다.

이달곤(2005, 151-152)은 입장협상에 집착할 때 생겨나게 되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위험성요소라 할 수 있다. 1) 합의시간이 오래 걸린다. 2)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3) 협상의 결과로 얻어지는 ‘뭉의 합’ 이 협상 전에 비하여 별로 증대되지 않을 것이다. 4) 당사자들간의 관계가 훼손되는 큰 손실을 가져온다. 5) 효율적인 이익의 배분이 어렵게 된다.

<표 6> 회담내용과 절차에 대한 분석의 틀

회담의 시계열적 정리	입장협상의 요소(분석 요소)	회담에 대한 분석과 해석
날짜별 혹은 시간대별 남북 고위급 회담내 용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다.</li> <li>② 목적은 승자가 되는 것이다.</li> <li>③ 관계유지 대가로 일방적 양보를 요구한다.</li> <li>④ 상대와의 협상이슈에 모두 완강하다</li> <li>⑤ 상대를 극도로 불신한다.</li> <li>⑥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려한다.</li> <li>⑦ 위협요소를 사용한다.</li> <li>⑧ 최대양보선에 대한 상대방의 오판을 유도하려고 시도한다.</li> <li>⑨ 합의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한다.</li> <li>⑩ 자신만 만족할 대안을 고안한다.</li> <li>⑪ 자신의 입장만 주장한다.</li> <li>⑫ 의지의 경합에서 승리하려 한다.</li> <li>⑬ 압력을 가한다.</li> </ul>	→ <p>위험성을 기준으로 해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합의시간이 오래 걸린다.</li> <li>2)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li> <li>3) 협상의 결과로 얻어지는 ‘뭉의 합’ 이 협상 전에 비하여 별로 증대되지 않을 것이다.</li> <li>4) 당사자들간의 관계가 훼손되는 큰 손실을 가져온다.</li> <li>5) 효율적인 이익의 배분이 어렵게 된다.</li> </ul>

회담내용을 절차에 따른 분석의 틀을 통해 위험성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여 극도의 불신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합의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이 결과 협상 당사자 간의 관계가 훼손되는 등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 Ⅲ. 남북 협상의 역사와 과정 정리

#### 1. 남북한 대립적 상호작용과 적대적 공존관계의 역사

남북한 대립적 상호작용과 적대적 공존관계의 역사에 대해서는 김재철(2015 ; 123-125)의 연구에서 인용하여 보정·정리하였다. 이는 필자가 주관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웠고,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선진학자들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인용하게 되었다.

##### 1) 분단이후 70년 이전 한반도 상황

분단이후 지금(2015)까지 남과 북은 대립적 상호작용의 연속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6.25전쟁을 치룬 이후 남과 북은 상호 간 군사적 긴장을 유지한 가운데 전후 북구에 치중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4대 군사노선’ 채택 및 ‘3대 혁명 역량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한국군 해군함정 피격을 비롯하여 청와대 기습 시도, 푸에블로호 납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대한항공기 납치 등 적극적 강경노선을 펼치기 시작하였다.<sup>3)</sup> 북한의 공세적 대남도발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고, 1971년 3월에는 주한미군 제7사단을 철수시켰다. 닉슨 독트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남 측에서도 자주국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 2) 1970년대의 남과 북

---

3) 이 부분은 북한연구소(1997), 「북한교육론」, pp.221-222의 부분을 김재철(2015)에서 재인용함.

1970년대 남과 북은 데탕트 무드에 편승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와 7.4 남북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저격시도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닉슨 독트린 영향으로 소원해졌던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즉, 1976년부터 팀스프리트 훈련이 시작되었고, 1978년 11월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위기도발을 자제하다가 제5공화국의 권력기반이 구축되자 1983년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 폭파 등 테러를 도발수단으로 선택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남한의 국력은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남한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울곡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고, 북한 역시 정밀무기(스커드 미사일) 도입, 기계화군단 창설, 예전력 강화 등 군비증강을 계속함으로써 상호 간 치열한 ‘재래식무기 군비경쟁’이 전개되었다.

### 3) 1980년대와 1990년대 남과 북 관계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급변하는 안보정세 속에서 소련의 붕괴와 서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탈냉전 시대가 개막되면서 한·러수교(1990.9.30.)와 한·중수교(1992.8.24.)가 성립되었다. 또한 남한의 급속한 경제성장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저성장→침체’ 과정을 거치면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흡수통일 등 체제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한과 대화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사찰 거부에 따른 한·미의 팀스프리트 연습 재개선언으로 제1차 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주행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4년 10월 미·북제네바 합의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1995.3.9.)되어 활동하고 있던 가운데 90년대 후반에 2차례에 걸쳐 북한 잠수함 침투와 제1차 연평해전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 4) 2000년 이후 남북관계

21세기를 맞이하여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북포용정책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던 기간에 북한은 제2차 연평해전과 제2차 핵 위기가 발생하였고, 결국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군사적 긴장조성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깨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5) 2008년 이명박 정부시대 남북관계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대북포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천명하였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이어 2차 핵실험, 천안함 피폭,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이어졌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역시 금강산 관광중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5.24조치, 강력한 응징 시사 및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등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가운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승계하였다.

#### 6) 2011년 김정은 체제 이후 남북관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군사적 긴장 조성’을 김정은의 군사적 리더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말기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평가해본 결과 기술적인 면에서 고농축 우라늄 제조 가능성과 폭발력 및 ICBM 탑재용 소형화·정량화에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분석<sup>4)</sup>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 ‘맞춤형 억제전략’ 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2015년 8월 4일 우리군 수색요원 2명이 중상을 입었고,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됨으로써 남과 북은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북한 제의로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8.25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무력충돌은 모면하였다.

## 2. 역사적 서술방법을 통해서 정리한 남북 협상의 역사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킨 이후, 6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왔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그 이후 어떠한 관계로 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협상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7>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

년대	주요 도발
1960년대	- 1.21 청와대습격 미수사건(1968) - 울진삼척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1968) - 푸에블루호 납치사건(1968)
1970년대	- 문세광 박대통령 저격미수사건(1974) -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
1980년대	- 버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1983) - KAL858기 폭파사건(1987)
1990년대	- 강릉잠수함침투사건(1996)

4) 김동수 외,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1, 통일연구원, pp.64-84의 내용을 김재철(2015)에서 재인용함.

	- 제1차 연평해전(1999)
2000년대 이후	- 제2차 연평해전(2002) - 대청해전(2009) - 천안함포격(2010.3.26.) 및 연평포격도발(2010. 11.23) - 목함지뢰 및 포격도발(2015)

자료 : 문성묵(2016), “남북간 군사협상 사례연구,”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19권 2호, p.64.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를 보면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청와대 및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한 도발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와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서 테러를 자행하였으며 1990년대 2000년대는 남북한의 해상 분계선에서 남측 군에게 공격하는 양상으로 변하게 된다..

<표 8> 남북 주요 사건과 협상의 역사 정리

시기	협상 제목	배경, 내용과 결과
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 관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1972.7.4	7.4.남북공동성명	- 서울의 이후락, 평양의 김영주가 평양에서 5.2-5.5까지 평양의 박성철과 서울의 이후락이 서울에서 5.29-6.1까지 진행 - 비밀협상 형식 -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국도 대신 서울, 평양으로 표기. 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p>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p> <p>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p> <p>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p> <p>4.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p> <p>5.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p> <p>6.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p> <p>7.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p>
1972.8.29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p>- 20차까지 열린 남북적십자예비회담에서 채택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제로 삼음.</p> <p>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p> <p>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p> <p>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p>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1985.8.25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1985.8.22)	- 1985년 8월 22일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제3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조국광복 40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실시하기로 합의. - 당시는 교환방문 시기를 9월 20일-9월 23일(3박 4일)로 정하여 1회 행사하기 위한 협의
1990.7.26	남북 고위급 회담 제8차 예비회담	-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1990.7.26.) - 남북 고위급 회담 예비회담 남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지고 쌍방 총리를 수석대리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문제에 대하여 합의. - 제1차 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하며, 제2차 회담은 199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다. 다음 회담 날짜는 매 차 회담 때 쌍방이 합의에 정한다고 협의. - 회담의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함.
1990 -1992	남북 고위급 회담, 8차례	- 88올림픽 성공개최 분위기에 따름. - 남북관계의 기본장전이라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타결.
	남북군사분과 위원회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을 위한 분야별 부속합의서에 3개 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 8차에 걸친 회의. 8차 회의는 1992.9.17,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체제인정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 행위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타결 - 1993년도 팀스프리트연습 중단 요구하면서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음.
1995.6.17. -6.21	대북 쌀지원을 위한 제1차	-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협의서 남과 북의 대표단은 1995년 6월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북경에서 쌀 협력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북경회담	<p>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측은 북측에 제1차로 쌀 15만 톤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무상으로 한다. 남측은 본 합의를 서명·교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킨다.</li> <li>남측은 상기 1차분을 해상을 통하여 남측 선박으로 청진항, 나진항 등에 인도한다. 이 경우 북측 항구까지의 수송비는 남측이 부담하며 남측의 필요에 의하여 제 3국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li> <li>북측에 제 1차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kg 단위 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시를 하지 않는다.</li> <li>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남측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 북측에서는 조선 삼천리총회사로 한다.</li> <li>남과 북은 쌀 인도·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한다.</li> <li>남과 북은 1995년 7월 15일 북경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li> <li>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 협의하여 해결한다.</li> </ol>
1999.5.29. -6.3	북경 남북비공개 제3차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 장성쉐라톤 호텔에서 비공개로 합의함. 국무총리 특별보좌관과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전금철 참석</li> <li>- 남과 북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북경에서 3차례 차관급(부상급) 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측은 1999년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 톤을 북측에 제공한다. 그중 6월 20일까지 10만 톤을 전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료의 종류는 남측의 생산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북측의 희망을 고려한다.</li> <li>수송절차는 쌍방 적십자사가 1997년 5월 26일과 7월 25일에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따르되, 수송통로에 해주항, 원산항, 청진항을 추가한다.</li> </ol> </li> <li>남과 북은 6월 21일부터 쌍방 차관급(부상급) 당국회담을 개최한다.</li> </ol>

		<p>(1)회담의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로 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합의한다.</p> <p>(2)회담장소는 1차 북경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협의, 확정한다.</p> <p>(3)회담대표는 각기 차관급(부상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다.</p> <p>(4)회담형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p>
<p>2000.6.15</p>	<p>제1차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p>	<p>- 6.15 공동선언</p> <p>-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p> <p>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li> <li>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li> <li>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li> <li>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li> <li>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li> </ol> <p>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p>

		<p>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0년 6월 1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적 긴장완화나 신뢰구축 관련 합의가 누락되었다는 지적들이 있었음.</li> <li>- 그에 따라 9월 25일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li> </ul>
<p>2000.9.11. - 9.14</p>	<p>특사 김용순 방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용순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발표</li> <li>-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가 2000년 9월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다. 남과 북은 이번 방문기간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지고 현재 남북간에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li> </ul> <p>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두 분 정상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시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li> <li>2. 쌍방은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대해서 환영하였다.</li> <li>3.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 작업을 9월 중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치기로 하였으며, 이들 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을 교환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기로 하였다.</li> </ol> <p>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을 9.20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올해 2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기로 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25 서울에서 개최하며, 빠른 시일 내 이를 타결기로 하였다.</li> <li>5. 남북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기공식을 개최기로 하였다.</li> </ol>

		<p>6. 북측은 15명 정도 규모의 경제지찰단을 10월중 남측에 파견키로 하였다.</p> <p>7.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금년 내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p>
2000.9.25. - 9.26	제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	<p>- 제주도에서 개최</p> <p>- 공동합의문 발표</p> <p>① 6.25공동선언 이행 노력, 민간교류협력의 군사적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p> <p>② 군사적 긴장완화, 공고한 평화구축과 전쟁위험 제거를 위해 공동노력</p> <p>③ 남북철도도로공사를 위한 안전보장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급회담 개최</p> <p>④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 설정문제는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p> <p>⑤ 제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에서 개최</p>
2004.6.4	제2차남북장 성급군사회담	<p>-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서해도발로 남북 해군 간 제1,2차 연평해전이 치러졌다. 2004년에 들어 노무현 정부는 서해충돌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군사당국 회담의 필요성을 북측에 제기</p> <p>- 2004년 6월 4일 제2차회담에서 소위 6.4합의서로 불리는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p>
2006.3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	<p>- 남북간 공동어로 문제 논의를 위해 회담이 개최.</p> <p>- 3차회담 이후, 7차 회담까지 5차례 이어짐.</p> <p>- 제5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공동보도문(2007.5.11.)</p> <p>-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보장 잠정합의서(2007.5.11.)</p> <p>-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논쟁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함. 2007년 12월 12일 회담을 끝으로 열리지 않음.</p> <p>-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보장합의서(2007.12.13.)</p>
2007.5.8. -5.11.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p>- 제5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공동보도문 발표</p> <p>남과 북은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1.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p> <p>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p> <p>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 하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p> <p>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으로의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p> <p>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p> <p>① 쌍방은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표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p> <p>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p> <p>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p> <p>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p> <p>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p>
2007.10.4	제2차 남북 정상회담	<p>- 10.4 선언 발표</p> <p>-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p>

	<p>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p> <p>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p> <p>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p> <p>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p> <p>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p> <p>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p> <p>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p>
--	---

	<p>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p> <p>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p> <p>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p>
--	---



		<p>해 나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p> <p>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p> <p>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p> <p>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p> <p>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p> <p>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p>
2007.11.14. -11.16.	남북총리회담	-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도출

		<p>-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p> <p>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합의하였다.</p>
<p>2007.11.27. - 11.29.</p>	<p>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p>	<p>-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군사분야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 목적으로 평양에서 개최</p> <p>-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이행에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채택.</p> <p>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p> <p>① 쌍방은 적대감 조성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p> <p>② 쌍방은 2004년 6월 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p> <p>③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p> <p>④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p> <p>이를 위해 쌍방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p> <p>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p> <p>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p>

	<p>②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p> <p>③ 쌍방은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p> <p>3.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p> <p>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p> <p>②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p> <p>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p> <p>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p> <p>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하였다.</p> <p>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p> <p>③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p> <p>5.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p> <p>① 쌍방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p> <p>②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p>
--	--

		<p>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p> <p>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p> <p>③ 쌍방은 개성·금강산지역의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p> <p>④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p> <p>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p> <p>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p> <p>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p> <p>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①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p> <p>②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p>
2002-2007.1 2.5	남북군사실무 회담	<p>-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2.9.17.)</p> <p>-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2003.1.27.)</p> <p>-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p>

		<p>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2003.9.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03.12.23.).</li> <li>-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2004.6.12.)</li> <li>-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보장합의서(2007.12.5.)</li> </ul>
2007.12.12. - 12.13.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도출</li> <li>- 통행의 군사적 보장, 통신의 군사적 보장, 통관의 군사적 보장</li> </ul>
2014.2.12. - 2.14.	남북 고위급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작성 발표</li> </ul> <p>남과 북은 2014년 2월 12일과 1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li> <li>2.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li> <li>3.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li> </ol> <p>남과 북은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하였다.</p>
2015.8.22. - 8.25.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li> <li>- 판문점에서 진행됨.</li> </ul> <p>접촉에서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p> <p>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li> <li>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li> </ol>

		<p>표명하였다.</p> <p>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p> <p>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p> <p>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p> <p>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p>
--	--	--

자료 : 문성묵(2015), 남북회담본부의 홈페이지(dialogue.unikorea.go.kr) 자료, 김용호(2000) 등 참조 후 필자가 재정리

남북 주요 사건과 협상의 역사는 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시작으로 2015.08.25. 남북고위 당국자 접촉까지 양측은 꾸준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하게 된다. 통일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 한다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실시를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방문에도 합의를 하게 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남북관계의 기본 장전이라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하게 된다.

1995년엔 대북 쌀 지원을 위한 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고 남측은 제1차로 쌀 15만 톤을 북측에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2000.6.15.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제1차 정상회담이 진행되었ek.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한의 군사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민간교류 및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게 된다.

2007.10.4. 대한민국의 노무현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노력하자는데 합의를 하게 된다.

2015.08.22.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여,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게 된다. 이 결과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고,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한다.

#### IV. 2015년 8월 25일 남북 고위급 회담 해석

##### 1. 치킨게임의 위험성

남북 고위급 회담의 협상 유형으로서의 위치를 분석해보면 입장협상에 포함되며, 입장협상에서도 강경한 경성 협상에 포함되며, 남북 고위급이 만나기 전에는 치킨 게임에 다다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sup>5)</sup>

<표 9> 2015년 남북고위급 회담의 협상 유형으로서의 위치

협상의 유형	남북고위급 회담	비고
원칙협상		
입장협상	○	
치킨게임	○	

2015년 남북고위급 회담의 협상 유형으로서의 위치를 보면 입장협상과 치킨게임이 동시에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윤기관(2011)은 입장 협상 중 가장 강경하다고 할 수 있는 치킨게임에서 남한의 대응전략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네 가지를 중심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첫째, 남한의 현재나 미래의 통수권자는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 반드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즉,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 한 이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게 ‘퍼주기 논란’ 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남한의 환심만 얻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주기 위한 것이다.

둘째, 남한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 경제적 지원은 일관성 있게 지속될 필요가

5) 윤기관(2011)은 북한이 무모한 치킨게임을 수십년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수십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치킨게임을 한국이나 미국은 왜 반복해서 응하고 있고, 게임 때마다 핸들을 돌려 겁쟁이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며 한국의 협상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의 정권이 바뀔 때는 북한에서 지원해주던 것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치킨게임에 돌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셋째, 대북한 경제적 지원정책은 반드시 개방경제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유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상의 내용은 북한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나 남한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입하고 있는 유연탄 등 경제적 자원이거나 남북인사나 이산가족 면회 등의 비경제적 대가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넷째, 대북한 경제적 지원은 미래의 통일비용 축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래에 값비싸게 부담해야 할 엄청난 통일비용을 현재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2. 남북 고위급 회담의 위험성 분석

### 1) 위험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상황에 대해 평화를 전제로 한 바람직한 상황을 전제하고 그 상황에 비교해보았을 때 남북 고위급 회담 전후 상황의 위험성과 협상과의 관계를 해석코자한다. 남북한 간 평화를 전제로 한 바람직한 상황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이는 기존의 평화 시에 유지되었던 사항들을 참고하여 제시한 것이다.

첫째, 전쟁 혹은 공격의 협박은 없어야 한다.

둘째, 개성공단 등을 통한 경제적인 교류가 있다.

셋째, 금강산 관광과 같은 교류가 있다.

넷째, 외국의 언론 등에서 한반도의 전쟁의 가능성을 논하는 상황은 아니어야 한다.

다섯째, 스포츠, 문화 등의 교류가 있다.

남북 고위급 협상 전후의 일자별 대응,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위험성 유발과 연결하여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남북 고위급 협상의 내용 및 결과 위험성 해석

일자	남북 행동 혹은 논의내용	위험성 유발측면에서의 해석
2015.8.4	- [북한] 2015.8.4. 7시40분. 북한군이 목함지뢰매설 폭발사고. 3명 부상(하하사, 정 중사, 김 하사).	- 북측의 [위험성 강화] 시작
2015.8.10	- [남한] 오후 5시부터 전방 2개 지역에서 대형 확성기를 동원해 대북 방송을 시작.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에 따라 중단된 이후 다시 재개. 방송을 재개한 전방 지역에 최고수준의 경계태세(A급)을 내림.	- 남측의 맞대응으로써 [위험성 강화]. 대응전이 심리전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동아일보, 2017.8.11.)이 있었다. 동아일보 8월 12일자 사설에서는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11곳 중 단 2곳만 가동한 것도 북의 눈치 보기라는 인상이 짙다.” 고 강한 응징을 요구하는 주장을 했다. 북측은 달랐다. 이후의 과정에서 북측이 이 확성기에 대해 매우 예민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자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했다.(동아일보, 2015.8.12.) -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 대북 제재, 2015년 대북 심리적 재개는 모두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제재 조치이다(동아일보, 2015.8.19.)
2015.8.14	- [북한]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담화를 발표하며 “우리(북한) 군대가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 수단을 이용했지 3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러댔겠는가”라며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고 요구	- 북측의 억지 주장
2015.8.15. -8.19	- [남한] 15일 남한에서 전 지역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확대	- 남측에서 [위험성 강화] - 북측에서 [위험성 강화]

	<p>- [북한] 17일 북한, 동부전선의 해안가 2,3 개 지역에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대남 방송 시작</p>	<p>- 북한은 15일 인민군 전선사령부 명의의 ‘공개경고장’ 을 통해 “(심리전은)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직접적인 전쟁도발 행위” 라며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후 18, 19일에도 잇달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UFG를 거론하며 “백두산 혁명강군의 무자비한 징벌에 빠도 추리지 못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남북은 2004년 6월 장성급 회담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 수단을 제거하고 심리전을 중단했다, 동아일보 2015.8.19.일자)</p>
2015.8.15.-8.17.	<p>- [남한]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대화와 협력을 재차 강조. 북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 이라면서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p>	<p>- 남측에서 [위협성 완화 노력] - 북측에서 [위협성 강화 표명] , 단 하루만에 박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제의를 일일이 거론하며 “뻔뻔하기 그지 없는 기만의 극치” 라고 매도하였다(동아일보, 2015.8.17일자 사설).</p>
2015.8.17.	<p>- [남한] 8월 17일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 박대통령은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9MDL)을 침범해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 이라고 주장(동아일보.2015.8.10)</p>	<p>- 남측 정규 훈련이지만 북측에서는 [위협성 강화]로 인식</p>
2015.8.20	<p>-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나서 ‘준(準) 전시상태’ 를 선포하고, 시한을 정해 놓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 고 발표.(조선일보. 2015.8.25.) - [남한]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군 대비태세를</p>	<p>- 북측에서 [위협성 강화 표명] -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진행되는 동안 육지, 연천에서 포격을 가함. 북한은 20일 같은 날 전형적인 화전(和戰) 양면전술을 구사했다. 군 총참모부 명의로 진통문을 보내 심리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48시간(22일) 이후 ‘군사행동’ 에 나서겠다고 위협하였다. 한편, 김양건</p>

	<p>유지하라” 고 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서부전선 연천에서 포격도발</li> <li>- [남한] 우리 군의 대응 포격</li> </ul>	<p>통일전선부장 명의의 다른 전통문에서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고 말했다(동아일보, 2015.8.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에서 대응전략으로써 [대응형 위험성 강화]</li> <li>- 20일 오후 5시경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포격 도발 사실을 즉각 보고 했다. 첫 보고는 지뢰도발 때처럼 전화상으로 이뤄졌고, 박 대통령은 지체없이 NSC 상임위를 소집했다. 회의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NSC 상임위는 위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지만 박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동아일보, 2015.8.21.). (별도 각주 *) (별도각주 **)</li> <li>- 북한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입장협상 요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라 할 수 있음.</li> <li>-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입장협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한다.</li> <li>② 목적은 승자가 되는 것이다.</li> <li>③ 관계유지 대가로 일방적 양보를 요구한다.</li> <li>④ 상대와의 협상이슈에 모두 완강하다</li> <li>⑤ 상대를 극도로 불신한다.</li> <li>⑥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려한다.</li> <li>⑦ 위협요소를 사용한다.</li> <li>⑧ 최대양보선에 대한 상대방의 오판을 유도하려고 시도한다.</li> </ol> </li> </ul>
--	--	--

		<p>⑨ 합의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한다.</p> <p>⑩ 자신만 만족할 대안을 고안한다.</p> <p>⑪ 자신의 입장만 주장한다.</p> <p>⑫ 의지의 경합에서 승리하려 한다.</p> <p>⑬ 압력을 가한다.</p>
2015.8.20	- [북한] 화전 양면전술 중 화합의 제스처를 보냄.	<p>- 북측의 [위협성 완화 노력]</p> <p>-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다른 전통문에서는 “현 사태를 수습고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고 말했다(동아일보, 2015.8.21)</p>
2015.8.21	- [남한] 남한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온 전통문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발송된 한국의 답신 수령 거부	<p>- 남측의 [위협성 완화 노력]</p> <p>- 북측 다시 남측의 제안 무시, [위협성 강화 의지]</p> <p>- 20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남북관계 개선 의사가 있다” 고 전통문을 보냈던 북한은 2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발송된 한국의 답신은 수령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낸 만큼 답장도 청와대 명의로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동아일보, 2015</p>
2015.8.21	- [남한] 박근혜 대통령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의지표명	<p>- 남측에서 강한 맞대응의지 표명</p> <p>- 박 대통령은 21일 제3군 사령부를 방문했다. “우리 군이 이번에 아주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줬다” 며, “우리 군의 이러한 단호한 대응은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고 평가했다.</p> <p>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도발하면 가차없이, 단호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는데 어제 우리 군의 즉각 대응 사격은 이런 평소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p>

		것”이라며 “먼저 정신에서 승리한 후에야 실전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당부했다(동아일보, 2015.8.22.).
2015.8.21	- [남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담화	- 남측에서 맞대응의지 표명 [위협성 유지]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저녁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동아일보, 2015.8.22.)
2015.8.21	- [북한] 김영철 정찰 총국장 기자회견	- 북측 대담 비방 지속 - 대남 무력도발의 총책 격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남한의 확성기 방송은 조선(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심리전”이라며 “남조선이 군사 도발 위기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8.22 오후 6시 30분 - 새벽 4시 15분 까지	- [남한, 북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진행, 회담시작(남한 김관진, 홍용표, 북한 황병서, 김양건) - 쌍방은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발표(조선일보, 2015.8.23.)	- 남과 북측의 [위협성 해소 노력] - 21일 오후 김양건 비서 명의로 김관진 실장과의 접촉을 제안했다가 우리가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대신 나올 것을 요구하자 22일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올 테니 우리 쪽에서도 김실장과 홍장관이 나올 것을 제안했고 우리 측이 최종 수용했다. - 북한은 이법 접촉을 북 주민에게 알리며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사용했다(동아일보, 2015.8.24.)
8.23.	- [남한] 박대통령이 철수 지시 - 북측이 지뢰도발 부인하자 박대통령 “회담장에서 나와라” 훈령으로 지시, 김관진·이병기 실장이 “조금만	- 남측의 [잠재적 위협성 강화 행동], 막다른 골목 전략 선택이 될 뻔도 했다. - 남측에서 박대통령의 명으로 회의

	<p>더...” 라고 요구해서 만류를 철회했다 고 함(프리미엄 조선 bemil.chosun.com, 2015.8.26.)</p> <p>- 23일 저녁부터 김관진 실장과 황 병서 총정치국장이 저녁부터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015.8.24.)</p>	<p>장을 나와 철수한다는 강한 행동으로 협상의 와해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별도각주 ***) 결과 론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설득하여 회의 는 이어짐.</p> <p>- 회담을 지켜본 통일부 당국자는 “북 한은 속된 말로 과거는 묻지 말라는 식이었다고 전했다(동아일보, 2015.8.26.) 다음과 같은 일에 대한 비 평이다.</p> <p>22일 오후 6시 반 판문점 평화의 집, 김 실장이 ‘목함지뢰’ 도발을 언급 하며 사과가 우선이라는 뜻을 전하자 황병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어물 쩍 넘어가려 했다.</p> <p>- 2명대 2명이 만나는 1차 접촉22일 오후 6시 반에 시작하여 23일 오전 4 시 15분까지, 23일 오후 3시 반에 재 개된 2차 접촉은 24일 새벽까지 이어 졌다(동아일보, 2015.8.24.)</p> <p>-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난 회동에서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동아일보, 2015.8.26.).</p>
<p>2015.8.25.</p>	<p>- [남한, 북한] 남북고위급 회담 합 의 발표</p>	<p>- 남북 측, [위협성 해소]노력으로 일 단락 합의</p> <p>- 홍용표 장관은 유감표명 유도한 첫 사례라고 긍정적 해석(조선일보, 2015.8.25.).</p> <p>- 홍용표 장관 “우리 측은 협상과정 에서 북한에 비무장지대 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 한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가 없다면, (협상을) 한 발짝도 앞</p>

		<p>으로 나갈 수 없다고 (북한에) 전달했다” 고 설명했다(조선일보, 2015.8.25).</p> <p>- 북한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남한은 ‘비정상적 사태 없다’ 는 전제 아래 오늘 정오부터 대북 확산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동아일보, 2015.8.25.)</p> <p>- 남북이 북한의 도발을 놓고 담판을 벌여 수습책을 찾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동아일보, 2015.8.25.일자 사설)</p>
--	--	--

(별도각주 \*) 2015년 8월 20일 오후 3시 53분경 북한의 14.5mm고사포가 발사되지 우리 군의 ‘아서-K’ 대표병레이더가 탄도 궤적을 포착했다. 도발 원점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포탄은 4.5km를 날아가 MDL 남쪽으로 3km 떨어진 경기 연천군 중면 인근 야산에 떨어졌다. 육군 28사단의 대북 확산기가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었다.

76.2mm 직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두 번째 포탄 수 발은 오후 4시 12분경 MDL 남쪽 700m 지역에 떨어졌다. 통상 직사포는 대포병레이더로 포착이 되지 않는다. 군 당국은 아군 장병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포연과 소리 등을 종합해 직사포로 결론 내렸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은 1시간 정도 지나서 이뤄졌다. 능장 대응 논란에 대해 군 당국은 “북측의 사격지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은 한 번에 이뤄졌다. 우리 군이 파악한 첫 번째 도발 원점으로 타격을 하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첫 번째 포탄이 떨어진 지점으로 확인하러 가는 도중 20분도 되지 않아 두 번째 포격이 일어났다” 며 “우리 군의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두 번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몰아서 한 번에 수십 발의 155mm 포탄 공격을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155mm 포탄을 쏠 수 있는 우리 군의 무기는 K-9 자주포 또는 K-55 자주포다.

우리 군은 주한미군과도 긴밀한 협의를 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최윤희 합창의장은 현 상황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과 공유하고 있다” 고 밝혔다(동아일보, 2015.8.21.).

(별도각주 \*\*)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유연성이 원칙의 틀에 갇혀 거의 발휘되지 못했고, 결국 대응방식이 벼랑 끝 전술로 갔다” 며 “결과적으로 잘 뺐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접근법은 남북관계를 푸는 데 있어 옳지 않다” 고 했다(프리미엄 조선 bemil.chosun.com의 2015.8.26.일자).

(별도각주 \*\*\*) 남북 고위급 접촉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시작된 8월 22일 남한 측 대표단의 지뢰도



발 사과 요구에 대해 북측은 한사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지시가 떨어졌다. “(우리 대표단) 철수하라고 하세요” 이병기 비서실장과 남측 수석 대표인 김관진 안보실장이 나서서 “북측이 아직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만류하고 나서야 박 대통령의 철수지시는 무마될 수 있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결코 물러설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성기 방송도 유지할 것”이라며 북측을 겨냥한 최후 통첩성 발언도 했다.

입장협상과 위협성 지속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아무리 강한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프리미엄 조선 [bemil.chosun.com](http://bemil.chosun.com)의 2015.8.26.).

#### <표 10> 남북 고위급 협상의 내용 및 결과 위협성 해석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보면

2015.08.04. 오전 7시40분. [북한] 목함지뢰 매설하고 남한군병사가 순찰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남측 병사 3명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2015.08.10. [남한] 오후 5시부터 전방 2개 지역에서 대형 확성기를 동원해 대북방송을 시작하면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에 따라 중단된 이후 다시 재개. 방송을 재개한 전방 지역에 최고수준의 경계태세(A급)을 내려졌다

북한은 15일 인민군 전선사령부 명의의 ‘공개경고장’을 통해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직접적인 전쟁도발 행위”라며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17일 북한은 동부전선의 해안가 2,3개 지역에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대남 방송 시작하고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진행되는 동안 육지, 연천에서 포격을 하게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군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이날 북한은 군 총참모부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심리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48시간(22일) 이후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하였다.

2015.08.23. 23일 저녁부터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저녁부터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나 협의를 진행 했다. 이날 회동에서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문을 2015.08.25.에 발표하게 된다.

## 2) 위협성 분석과 입장협상 정도 해석

### (1) 군사행동까지 개시하는 막다른 골목 기법 등장

북한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막다른 골목을 활용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협상에 서 치킨게임이상으로 왜곡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8월 20일 오후 5시에 전통문을 우리 측으로 보내왔다(경향신문, 2015.8.20.). 국방부의 발표이다. 국방부는 “북측은 전통문에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우리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전면적 중대 도전이라고 억지 주장했다” 고 밝혔다. “북측은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 이라고 위협했다고 국방부는 발표했다.

남한도 8월 22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도 최전방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맞대응의 모습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연합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대북 정보담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에서 2단계로 격상해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대응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남북간 대화 중에도 도발을 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한 것이었다.

### (2) 원칙과 오기가 엮어진 끝장협상이며 입장협상

2015년 8월의 남북 고위급 회담은 입장협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15년 8월 25일자에서는 “박 대통령의 ‘원칙’ 과 김정은의 ‘오기’ 가 부딪치는 가운데 66세 동갑내기인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43시간 동안 사활을 건 ‘끝장 협상’ 을 했다” 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황병서와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김정은이 모니터를 통해 회담 장면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김정

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주기 살기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연결하여 같은 글에서 “등 뒤에 칼을 쥐고 손을 내민 남북 협상은 평행선과 점점 찾기, 난항으로 이어지는 롤로코스터였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입장협상측면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긍·부정 효과 해석

그 동안 진행되어온 다양한 남북 협상과 2015년의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다. 2015년 8월 25일의 남북 고위급 회담이 현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최근에 있었던 비중있는 협상이어서 이 협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을 인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의 주관성은 최소화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 표현된 입장들을 모아내고자 한다.

#### (1)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긍정적 해석들

##### ① 대화로 남북 대치 상황 해결

박민혁·윤완준(동아일보, 2015.8.26.)은 2015년 8월 25일 새벽 두시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큰 수확은 남북 대치 상황을 대화로 풀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덧붙여서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안전을 대화를 통해서 지켜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한반도 평화안보특위 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도 오랜 시간 회담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남북 모두 윈-윈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경향신문, 2015.8.25.).

##### ② 확성기 방송에 대한 주도권 확보

긍정적인 측면 중 확성기 방송에 대해 남측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협상과정에서 확성기 방송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고 한다(동아일보,

2015.8.26, 박민혁·윤완준 기자).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확성기 방송의 ‘영구 중단’ 과 확성기 철거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단이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자 오히려 북측이 “우리가 다시 도발하면 확성기를 다시 틀어라” 라고 중재안을 제안해 최종문구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확성기 영구 중단을 피하고, 북측이 도발하면 다시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 ③ 대통령-군-국민의 단호한 대응의 결과

동아일보 사설(2015.8.25.)에서는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대통령-군-국민이 모처럼 한 몸이 돼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한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 ④ 강력한 ‘대북원칙론’ 의 적실함 확인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박대통령의 ‘대북원칙론’ 이 통했다고 할 수 있다(동아일보, 2015.8.25.). 박 대통령은 8월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다” 라면서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 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매번 반복되어 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⑤ 북측의 유감표명 유도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포격 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 들어서는 처음이었다(동아일보, 2015.8.25.). 역사적으로 보아도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 것은 많지 않다. 동아일보 2015년 8월 25일자와 경향신문 2015년 8월 25일자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과는 1972년 5월이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간첩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에 대해 북한 김일성 주석이 비밀리에 방북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한 것, 다만 김 주석은 “우리 내부 좌경 맹동분자의 소행”이라고 해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유감표명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것이다. 1976년 8월 18일 미군 장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는 4일 만에 유감입장을 내놨다. 미국이 반발해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투입하여 무력시위를 벌이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명의로 유감 표명 메시지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세 번째 유감 표현은 1995년 6월의 시아팩스호 인공기 계양사건이다. 북측 대표가 남측 대표에게 전문을 1995년 7월 보내서 “아래 일꾼의 실무적 착오로 불미스러운 일 발생해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네 번째 유감표명은 1996년 12월이다.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일 뒤 북한은 무장공비들이 정상적인 훈련 중에 좌초됐다고 잡아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그해 12월 외교부 명의로 유감을 표시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유감표명은 2002년 6월 29일 일어난 제2연평해전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은 7월 25일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 수석대표에게 “얼마 전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여섯 번째 유감표명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관련이다. 2008년 7월에 명승지 종합개발 지도국 담화를 통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발표했다.

일곱 번째 유감표명은 연평도 포격도발관련이다. 2010년 11월에 조선중앙통신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책임은 ‘인간방패’를 형성한 적들에게 있다”고 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태평양 선임보좌관 출신으로 수차례 대북협상 경험이 있는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대개 협상은 51:49의 결과로 타결되는데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52를 얻었다” 며 “북한의 공개적 유감 표명을 신속하게 얻어낸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소득” 이라고 했다(동아일보, 2015,9.26). 그는 “2000년대 초반 북미 협상에서도 사흘 가까이 밤샘 협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북한과 장시간 협상을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봐도 좋다” 며 “게다가 북한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유감표명 합의문을 조선중앙 TV를 통해 가감 없이 공개한 것도 처음” 이라고 말했다.

## ⑥ 안보문제 다룰 방법 인식하는 기회

존 메릴 전 미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국장은 이번 위기 대응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중요한 안보 문제를 잘 다뤄 나갈 줄 안다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동아일보, 2015.8.26.).

## (2)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소극적 해석들

### ① 지뢰도발의 주체 제시 불분명

2015년 8월 25일 발표한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에 대한 동아일보(2015.8.26.) 윤완준 기자의 평가표를 보면 통일부의 긍정적 해석을 제시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때 평가는 소극적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11>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에 대한 평가

공동보도문 내용	통일부 설명	평가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 남북 합의문에서 북한을 유감표명의 주체로 첫 명시 - 소행자체를 부정하던 지뢰도발에 대해 북한 대표단이 회담 과정에서 시인	- 국민 눈높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분명한 사과에 못 미침 - 지뢰 도발 주체 불명확 - 포격 도발 문제 실종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면 확성기방송 재개할 것 - 따라서 재발방지문구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재발 방지 효과	- 재발장지 확약 못 받은 채 확성기 방송 중단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 남북 회담 정례화 체계화에 공감 - 향후 전망으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음	- 남북 회담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궤도 - 북한이 합의 지킬지는 지켜봐야

자료 : 동아일보, 2015.8.26.일자.

2015.08.25. 남북 고위급 공동보도문을 살펴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윤관준(동아일보, 2015.8.26.)은 앞의 <표 >에서도 제시하고 있다시피 공동보도문만 보면 유감 표명의 주체는 명확하지만 지뢰도발의 주체는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라고 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주민들에게 “한국군에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에 위



로의 뜻을 건넨 것” 이라고 둘러대며 자신들의 협상성가로 선전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25일 북한에 돌아가 “남조선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운운한 것도 표현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받아낸 것은 성과이지만 우리 측의 ‘완승’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다.

## ② 명시적인 재발방지 약속 부재

박민혁·윤관준(동아일보, 2015.8.26.)의 뉴스분석 기사에서는 아쉬운 대목으로 명시적인 재발방지 약속 부재를 제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고 썰기를 박았지만 문구에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는 “전체적인 맥락상 재발 방지의 함의가 담겨 있다” 고 강조하고 있지(동아일보, 2015.8.25.)만 문구에는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감표현의 내용에도 북측이 회석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경향신문 2015년 8월 25일자에서는 ‘북측지뢰’로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했다는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유감표명만으로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③ 요구를 받아들이는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방식 답습

북한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들이 두려워하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북의 도발에 이은 협상, 남측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역대 정부의 위기관리 방법” 을 답습한 것(동아일보, 2015.8.26.)이라는 해석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악순환을 끊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태평양 선임보좌관 출신으로 수차례 대북협상 경험이 있는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의 경우도 “이번사태는 대북확성기 방송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는데 남



측이 이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다운사이드(downside : 불리한 측면)” 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적인 유감표현에 우리 측은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큰 선물을 주고 우리의 대북정책의 중요한 요소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동아일보 2015년 8월 26일자에는 세 명의 인터뷰가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절박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얻어냈느냐는 모호하다” 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유감 표명이 과거보다 진전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의도한 것을 모두 관철시켰다는 해석은 정부의 자화자찬” 이라고 말했다.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고 평가했다.

### 3. 회담분석을 통한 협상적 시각의 시사점 도출

#### 1) 협상력의 강화

남북 협상은 회담장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협상을 주도하는데 있어 강력한 군사력과 국민적 단결이 곧 우리의 강력한 협상력이 된다는 점이다(문성묵, 2016).

목함지뢰 폭팔사건 이후 우리나라가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행동은 입장협상으로 가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잡기위한 계기가 되었으며, 북측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또한 협상 말미에는 방송 중단이라는 선물을 줌으로써 협상을 종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협상을 위한 거래에서는 우리 측이 손해라는 입장들이 있었다.

#### 2) 상대측의 윈셋(win-set) 관찰력 제고

북측은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으나 남측의 확성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남측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측은 남측의 확성기를 금지시켜야 하고,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남측이 적절히 활용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남측의 확산기 대북방송이었고 북측이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남측의 대북확성기를 금지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2015.8.25.일자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대북 심리전 중단을 반드시 얻어가야 하는 북한 대표단의 절박함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황병서와 김양건은 모두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냥 돌아갈 수 없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동아일보, 2015.8.26.).

군사협상의 목적은 이 땅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있었다(문성묵, 2016). 남측의 목적은 이와 같이 군사적 긴장완화이고, 전쟁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과 북한의 심리적 중단에 대한 절박함 이해관계가 맞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만의 협상력을 위한 군사적 힘은 물론이지만 확산기의 성능과 같은 힘을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원색을 관찰하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같은 언어사용과 만남이 길어지면서 만들어진 친화분위기

협의를 시간이 흐를수록 황병서가 ‘귀족’ ‘김관진 실장’이라는 공식 호칭 대신에 ‘김 선생’ ‘김실장 선생’으로 부르는 등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고 한다(동아일보, 2015.8.26.). 김 실장과 황병서가 비공개 회담을 하는 동안 김양건과 홍용표 장관도 자연스럽게 따로 만나 남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홍용표 장관은 25일 “오랜 시간 같이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상대방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 4) 내부환경적 요소 고려

협상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이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에서도 잇달아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경향신문, 2015.8.18.). 이렇게 초기 대응의 부족은 특히 남북 대치상황에서는 협상에서 가장 큰 결점일 수도 있다. 내부적인 갈등까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8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장관은 (지뢰사고가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5일에 안 것 같고 그것을 기반으로 오후에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8월 12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뢰폭발사고 당일인)4일 늦게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했고, 그런 사실이 (청와대에) 다 보고됐다” 고 밝혔다. 5일 오후에 가서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을 열고 “5일 오후 1차 현장조사 결과 유실된 지뢰가 아니고 북한이 만든 목함지뢰로 추정이 된다는 내용을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보고했다” 며 “세 번째 보고는 8일 오후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관련 대응 계획을 당일 저녁에 (대통령에게)보고했다” 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 장관)이 기억에 의존해서 발언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 며 청와대 해명이 맞다는 취지로 수정 발표하는 상황이 있었다.

## 5) 외부환경적 요소 고려

동아일보 2015년 8월 25일 사설에서 남한의 결연한 대응과 함께 한미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처음으로 가동하고 무력시위를 하는 등 도발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중국도 9월 3일 전승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북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 김정은에게 큰 압박이 됐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외부환경요소 중에는 유엔군사령부의 움직임도 있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

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8월 18일 “유엔군사령부 군정위가 지난 10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답변을 내놓았지만 장성급 군사회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2015.8.18.).

협상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남측 정부는 북한 지뢰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을 하는 노력을 하였다. 8월 20일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표시와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발송했다고 정부당국자가 발표했다는 보도(경향신문, 2015.8.20.)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서한의 내용은 북한의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안보리가 이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는 것이다. 이 서한은 우리의 요청에 따라 당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다고 한다. 안보리가 북한의 지뢰도발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의장성명 등을 발표하는 행동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번 사건을 안보리 차원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의 명분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4. 남북 고위급회담 분석이 남한의 협상전략에 주는 교훈**

이상의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협상대상자로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강한 배수진의 표명, 양보할 수 없는 선 제시와 유연성 확보**

군사적 충돌이면 북한의 정권유지, 그 동안의 북한을 유지해온 모든 정통성, 물질

재산 등이 모두 파괴된다는 것을 강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양면전략으로 good guy와 bad guy기법을 활용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2015년 8월 25일자에서는 양보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공시켜냈다고 한다. “남북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요구와 주장만 고수하던 데서 한 발 물러나 양보함으로써 합의를 이뤄낸 점이 돋보인다.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을 촉발한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문제는 남측이 그동안 고수하던 원칙을 철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지뢰도발의 주체와 책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북한이 유감표명을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을 참고한다면 빠져나갈 곳을 마련해 주고, 유연성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작은 협상과 축조 협상 활용

이행이 가능하면서도 점점 마련이 용이한 사안들을 먼저 찾아서 하나씩 성사시켜 가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문성묵, 2016). 예를 들어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6.25전쟁 유해 공동발굴은 북한측도 관심을 표명한 바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다.

새로운 합의의 양산보다는 기 합의사항 중 실천 가능한 사안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행하고, 합의사항을 지키면 이익이 되고, 안 지키면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도 있다(문성묵, 2016).

이러한 논의는 정계에서도 치열하게 있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과먼저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쉬운 일부터 합의를 해나가자”는 입장으로 나뉘었다(한겨레신문, 2015.8.24.).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북한이 도발의 ‘도’ 자도 생각할 수 없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도발을 협상의 수단으로 여기는 북의 악습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

을 훼손하면 안 돼” 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단숨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남북 관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고 피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안보와 위기의 대응은 대한민국이 포용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한반도 평화 안전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은 “입구 전략(북한의 사과)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전략적 접근, 출구전략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3) 협상의 정례화와 창구 개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1년에 몇 회 정기 회담을 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필요할 때에 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협상의 정례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4) 목적과 명분과의 균형찾기 중요성

협상에서는 목적과 명분에서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실익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목적달성보다는 명분에 의해 협상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표명을 받아들인 것이 중요하다는 미국의 해석이 있다. 북측이 사과를 한 것인가에 대한 것 보다는 중요한 것은 북한 사과를 한국이 받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015년 8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것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제시한 이 표현(유감)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봤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고 발표했다(경향신문, 2015.8.26.).

## V. 결론 및 제언

###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2015년 8월 25일 극적 타결된 남북 고위급 회담의 협상과정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입장협상의 위험성에 대해 해석한 후, 시사점을 찾으려하였다. 협상과정에서 남북 고위급 양측에서는 군사행동까지 개시하는 막다른 골목 기법을 쓰거나 원칙과 오기가 엮어진 끝장협상 즉, 치킨게임 이상의 왜곡된 협상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협상과정에서 북의 경우는 전쟁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남측은 경계태세를 강화시키는 상황으로 유도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했다. 이러한 협상기법은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일반시민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협상과정에서 북측은 남측의 확장기를 금지시켜야 하고,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남측이 적절히 활용했다. 이로 인하여 남측의 협상 목적인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전쟁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심리적 중단에 심리적 절박함을 이용함으로써 남·북간의 합의가 이르게 되었다. 군사적 충돌이면 북한의 정권유지, 그 동안의 북한을 유지해온 모든 정통성, 물질적 재산 등이 모두 파괴된다는 것을 강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

초기의 협상과정에서 남북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요구와 주장만 고수하다 협상 진행과정에서 남북은 한 발 물러나 양보함으로써 합의를 이뤄낸 점이 돋보인다.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을 촉발한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문제는 남측이 그동안 고수하던 원칙을 철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2. 정책의 제언

협상에서는 목적과 명분에서 목적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실익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목적달성보다는 명분에 의해 협상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

남북협상은 회담장에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협상을 주도하는데 있어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국민적 단결이 곧 우리의 강력한 협상력이 된다. 주변국과의 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에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세계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군사적 도발의 위험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아울러 북한측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요청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협상의 의제도 새로운 합의의 양산보다는 실천 가능한 사안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행하고, 합의사항을 지키면 이익이 되고, 안 지키면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며 협상과정에서도 이행이 가능하면서도 점점 마련이 용이한 사안들을 먼저 찾아서 하나씩 성사시켜가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동엽(2015), “남북 군사회담 합의의 이행 평가,” 북한연구학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2권.
- 김용호(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 협상 전략,”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제6권 제1호.
- 김재철(2015),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 학회, 「한국동북아논총」 77권.
- 문성목(2016), “남북간 군사협상 사례연구,”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19권 2호.
- 신국호(2005), 「협상으로 가는 협상전략」, 종합출판 J-Books.
- 윤기관(2011), “Chicken Game이론을 활용한 북핵문제의 국제통상론적 해법,”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이달곤(2005), 「협상론」, 범문사
- 이성춘(2013), “북한 협상모델 분석을 통한 경제협력 실천방안 연구 - 남북 군사협상 및 개성공단 실무회담 사례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5권 3호.
- 전성철·최철규(2009), 「협상의 10계명」, 웅진윙스
- 허브 코헨, 김태훈 옮김(1996), 「허브코헨의 협상」, 열린세상
- 홍순직(2015),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3/4분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8.25합의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치 급상승,” 현대경제연구원,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11-38 통권 635호.

<Abstract>

# The Analysis of the Dangers of Positional Negotiations through Case Studies of High Level Inter-Korean Talks

Kyong-Nam Hw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wang, Kyung Soo)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high-level inter-Korean high-level talks that happened on August 25, 2015, and through that analysis, the dangers of positional negotiations are interpreted. Afterwards, attempts have been made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the said proceedings. Therefore, this study assumes that high-level inter-Korean talks are included within the negotiation of a big concept and analyzed within that premise. The high-leve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were also seen as one of the negotiations, and the process of negotiations was to interpret the two sides in response to the negotiations.

In this study, theoretical research and previous studies were carried out, while

choosing not only to interpret but arrange the contents systematically using the case studies. At the time of case study analyses, the framework of analysis was defined and interpreted within their range. Due to the sensitivity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South and the North are confronting each other, efforts were made to avoid subjective interpretation as much as possible and construct a certain logic by citing the expressions of previous researchers.

In particular, the content of the high-leve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were centered on the articles published in newspapers. In order to have an objective and unbiased view, various newspapers such as Chosun Ilbo, Dong-A Daily News, Kyunghyang Sinmun and Hankyoreh Sinmun were used as references to maintain a level balance. The contents of the Dong-A Ilbo were used to summarize factual contents and if there was a different opinion or logic, the contents of the newspaper were quoted per verbatim.

During the negotiations on the high-level talk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South authorities appropriately applied the ban on the loudspeakers requested by the North knowing that the North was sensitive about this issue. With this as a basis, the South tried to alleviate military tens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its ultimate aim to prevent war. The use of this psychological urgency in the psychological breakdown of North Korea ultimately led to an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e initial negotiations, the two Koreas had stubbornly insisted on demands and claims that could not be conceded on either side. What is really impressive at this point was that the South stepped back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which led to an agreement. The apology issue of the minefield which was a trigger in enhancing military tension was able to be resolved due to the South yielding whereby they withdrew their original principle that they had been maintaining until that tim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nalysis, it is a given to suppose that the purpose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process of the negotiation. If more emphasis was put on cause than on purpose as it is usually in Korea, it may be difficult to negotiate on the basis of justification rather than achieving the goal. Although the negotiations are usually held in meeting rooms, the strong military and national solidarity based on the US-ROK military alliance that happens outside will become the strong negotiating power in leading the negoti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strive to alleviate military tensions through consensu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agenda of the negotiations also needs to clearly identify the facts that can be practiced rather than mass production of a new consensus, that it is profitable to keep the agreements, and if it does not, it will be disadvantageous.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to make these easy mistakes first and also to make them one by one.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 negotiation strategy for high-level inter-Korean talks and important diplomatic negotiations in the future.

Keywords : Inter-Korean High-level Talks, Negotiation Technique

